김응룡 "이대은-이학주 법 바꿔야"

해외진출 꿈 막는 KBO에 쓴소리

'국내 복귀 2년 제한' 규약 수정 필요
억지로 못가게 해 해결될 문제 아냐
구단들도 정당히 스카우트 경쟁해야

김응룡 야구학교 총감독(KBO 공식기록업체 스포츠투아이와 함께 하는 야구아카데미)이 이대은(지바롯데 퇴단)과 이학주(샌프란시스코 퇴단)의 발목을 잡은 KBO규약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김 총감독은 20일 성남 분당 투아이센터에서 열린 야구학교 개교식에서 이학주 플레잉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뛸 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어느 나라가 외국에 진출했다가 돌아온 선수에 그런 제약을 주느냐. 규칙을 바꿔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O야구규약 제107조에 따르면, '신인선수 중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한 선수는 외국 프로구단과의 당해 선수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간 KBO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올 시즌을 앞두고는 '해외진출 후 국내프로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무, 경찰야구단에 입대한 선수의 퓨처스리그 경기출장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개설되면서, 해외리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선수들의 손발이 묶였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선수들이 이대은과 이학주다. 이들은 소속팀 계약 만료 후 한국무대로 돌아왔지만 규약에 따라 2년간 어느 팀에서도 뛸 수 없다. 2018년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입단이 가능하며, 2019시즌부터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2년간 경찰청과 상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해도 경기는 뛸 수 없다. 이학주는 고민 끝에 야구학교에서 플레잉코치로 생활하면서 몸을 만들어 KBO리그에 복귀할 준비를 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KBO도 입장이 있다. 이 규약을 없애면 고교 유망주들의 무분별한 해외진출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진다. 재능이 많은 유망주들을 자꾸 해외구단에 뺏기게 되면 KBO리그 자체 선수수급에 차질이 빚어진다. 선수수급은 프로구단들의 오랜 고민거리다. 프리에이전트(FA)들의 몸값이 높아지는 것도 구단이 늘어나면서 선수 수요는 많아졌는데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는 상황부터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그러나 김 감독은 "해외에 진출한 선수들이 도둑질하러 간 게 아니다. 외화를 획득하고 메이저리그 기술도 습득해서 오지 않느냐"며 "해외 진출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선수들이 '어디서라도 뛰게 해 달라'고 고민을 털어놓는다. 그런 규약은 바꾸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선수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2년 못 뛴다는 규약 때문에 갈 선수가 안 가는 건 아니다"며 선을 긋고는 "해외 진출했던 선수들도 결국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만약 해외진출을 막고 싶으면 스카우트 경쟁을 하면 된다. 억지로 못 가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규약 수정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분당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김응룡 전 감독(맨 오른쪽)이 20일 성남 분당 투아이센터에서 열린 야구학교 개교식에 총감독 자격으로 참석해 테이프 커팅 행사를 하고 있다. 여자야구대표팀 선수 김라경(왼쪽부터), 김인식 국가대표 감독, 정대철 전 KBO 총재, 이기주 스포츠투아이(주) 대표이사 그리고 이용일 KBO 초대 사무총장 등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 | 스포츠투아이

제2의 류현진·김광현 꿈이 자라는 '야구학교'

▌현장 리포트

성남 투아이센터 야구아카데미 개교
총감독엔 김응룡…입학신청 줄이어
분당서울대병원 제휴 재활센터 운영

'제2의 류현진·김광현을 위한' 국내 최고 야구아카데미가 문을 열었다. 20일 오후 성남 분당에 위치한 투아이센터 1층에서 열린 야구학교 개교식에서는 총감독으로 위촉된 김응룡 감독을 비롯해 이용일, 정대철 전 KBO총재, 김인식 WBC 국가대표 감독, 강병철 전 롯데 감독, 이광환 전 LG 감독, 김용희 전 SK 감독, 한대화 전 한화 감독, 선동열 전 KIA 감독, 이대은 WBC 국가대표 등 야구계 유명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KBO 공식기록업체 스포츠투아이와 함께 하는 야구학교는 프로야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소년야구의 발전과 더불어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세워진 종합야구트레이닝 시스템이다. 앞으로 김 총감독을 비롯해 임호균 감독, 마해영 코치, 박명환 코치, 이학주 플레잉코치 등 쟁쟁한 코치진들이, 스포츠투아이가 보유 중인 투구/타구 추적시스템(PTS/HTS)을 접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할 예정이다. 전문 재활센터도 운영된다. 프로 경력 34년의 베테랑 트레이너인 강흠덕 재활센터장을 비롯해 전문 트레이너들이 대기하고 있으며, 분당서울대병원과 제휴해 최상의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재활센터는 종목에 상관없이 일반인들에게도 오픈된다.

이날 행사에는 야구학교의 개교 소식을 들은 유소년 꿈나무들과 부모들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투아이 관계자는 "야구학교를 개교하기 전부터 신청하려는 유소년 선수들이 많았다. 프로에서 방출돼 훈련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선수들도 연락이 오고 있다"며 "훈련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고, 통계분석시스템을 접목해 야구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상일 스포츠투아이 야구학교장은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소년야구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싶었다"며 "지도자, 분석기법 등 선진야구의 모든 요소를 갖춰 야구학교를 운영할 것이다. 기초를 다지는 일부터 충실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보수로 야구학교 총감독을 맡은 김 감독은 "(한국야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고맙게 생각한다"며 "야구는 기본기가 중요하다. 야구학교에는 좋은 코치들이 많으니 기본기를 잘 배워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분당 | 홍재현 기자

황재균의 ML 쇼케이스 롯데 "지켜볼 수밖에…"

"상황 정리 돼야 FA 협상 진행"

황재균

프리에이전트(FA) 황재균(29)이 2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을 앞에 두고, '쇼케이스'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저리그에 도전한 KBO리거는 적지 않았지만 쇼 케이스 개최는 꽤 이례적 행보로 비친다.

쇼 케이스는 말 그대로 잠재적 구매자들을 향해 스스로의 가치를 보여주는 무대다. 내야에서 평고를 받고, 배팅케이지에서 타격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쉽게 말해 훈련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는 사람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평소 연습보다 힘을 훨씬 더 쓸 것이다.

KBO의 시각에서는 쇼 케이스가 익숙하지 않겠지만 메이저리그 관점에서는 딱히 특별하지도 않다. 중남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릴 때, 이런 방식을 곧잘 활용한다. 이름값에 관심은 두되, 눈앞에서 직접 그 선수를 검증하고 싶은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쇼 케이스에 참가한다.

황재균의 쇼 케이스를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스카우트가 참가할지부터가 관심사다. 이미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KBO를 통해 황재균을 비롯해 차우찬, 김광현, 양현종, 우규민, 최형우 등의 신분조회를 했다. 미국에서 일차적인 관심은 표명한 것이다. 이제 이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구단의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미국행 성사를 가를 것이다.

황재균은 선도주자인 강정호(피츠버그)처럼 메이저리그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3루수 이외의 멀티포지션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롯데에서 황재균이 3루수로만 뛴 것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도전이다. 그러나 강정호처럼 해내야 미국에서 경쟁력이 생기는 현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메이저리그 보라고 하는 쇼 케이스이지만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곳이 있다. 황재균의 원 소속팀 롯데다. 롯데 이윤원 단장은 20일 "황재균이 일단 메이저리그 도전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안다.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야 롯데와 협상 테이블이 열리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야구는 야구장서…변화의 바람 부는 넥센

장정석 체제 각자 역할·원칙 강조
선수들 마무리캠프 훈련 집중도 업

장정석 감독이 이끄는 넥센 선수단은 2일부터 일본 가고시마에서 마무리훈련을 진행 중이다. 귀국일(23일)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야구는 야구장에서 한다"는 기조가 확실히 깔려있기 때문이다. "불과 4시간 남짓한 훈련이지만, 어느 때보다 집중력은 높다"는 것이 장 감독의 설명이다.

장 감독은 취임 당시부터 "야구는 선수가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칙은 이번 마무리캠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선수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 코치와 상의해 보완하는 방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훈련 일정을 모두 마친 뒤 호텔 인근에서 배트를 휘두르거나 섀도피칭을 하는 모습도 사라졌다. 장 감독은 "야간 훈련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게 맡겨두고 있다. 공부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냐"며 유쾌하게 웃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훈련에서 장 감독의 역할은 '필드 매니저'다. 훈련은 선수와 코치에게 맡기고 현장을 관찰하는, 넥센 이장석 대표가 가장 강조한 역할이다. 장 감독이 코치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선수들이 원할 때 소통하며 지도하라"고 강조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대신 "훈련 시간에 선수들과 야구 외적인 대화는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마무리캠프에 참가한 선수 대부분이 1~1.5군 사이의 레벨이다. 게다가 투수조 최고참은 22세일 정도로 젊다. 기본기를 정립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장 감독은 "훈련 시간이 짧지만 선수들은 힘들다더라"며 "넥센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것을 느꼈다. 야구장에 머무는 4시간 동안 모든 훈련을 집중하고, 이후에는 선수들이 알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한다. 이번 캠프는 선수들의 유형을 파악하는 자리다. 이정후, 김혜성 등 신인들의 훈련 자세도 아주 좋다"고 흐뭇해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2016 ML MVP·사이영상·신인왕 영광의 주인공들

셔저, 역대 6번째 양대리그 사이영상

NL MVP에 작년 신인왕 브라이언트
트라웃, 2년 만에 또 AL MVP 올라

메이저리그(ML)도 2016년을 정리하며 각 부문 최고의 선수들을 결정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관심을 끈 내셔널리그(NL)와 아메리칸리그(AL) MVP(최우수선수)와 사이영상, 신인왕 수상자들이 전미야구협회(BBWAA) 기자단 투표를 통해 확정·발표됐다. 2016년 영광의 주인공들을 정리해본다.

●내셔널리그(NL)

▲MVP=크리스 브라이언트(시카고C)

시카고 컵스는 108년 만에 우승하고, 1998년 새미 소사 이후 18년 만에 MVP도 배출했다. 지난해 NL 신인왕에 올랐던 브라이언트는 올 시즌 155경기에 출장해 타율 0.292(603타수 176안타), 39홈런, 102타점을 올리는 맹활약을 펼쳤다. 1위표 30표 중 29표를 휩쓰는 등 총점 415점을 받아 경쟁자 대니얼 머피(워싱턴·245점)와 코리 시거(LA 다저스·240점)를 크게 앞섰다. 신인왕 이듬해 MVP에 오른 것은 ML 역사상 4번째다.

▲사이영상=맥스 셔저(워싱턴)

20승7패, 방어율 2.96의 역투를 펼친 셔저는 NL에서 가장 많은 228.1이닝과 284탈삼진까지 기록했다. 7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와 4년 연속 200이닝 이상의 내구성까지. 지난해 7년 총액 2억1000만 달러에 이적한 셔저에게 FA 거품을 논할 수 없다. 2013년 디트로이트에서 AL 사이영상을 받은 데 이어 ML 역사상 6번째 양대리그 사이영상 수상자가 됐다. 총 192점을 얻어 컵스의 존 레스터(102점)와 카일 헨드릭스(85점)를 완벽하게 따돌렸다.

▲신인왕=코리 시거(LA 다저스)

타율 0.308, 26홈런, 72타점. 193안타는 NL 2위이자 다저스가 연고지를 LA로 이전한 뒤 최고기록이다. 공격력을 갖춘 다저스의 젊은 유격수는 MVP 투표에서도 3위에 올랐다. 1위 30표를 모두 휩쓸어 만장일치 NL 신인왕에 올랐다. 1992~96년 5년 연속 신인왕을 배출해 한때 신인왕 산실로 불린 다저스는 1996년 토드 홀랜스워스 이후 20년 만에 신인왕을 내놓았다. 오승환(세인트루이스)은 3위표 1장으로 1점을 받아 공동 6위.

●아메리칸리그(AL)

▲MVP=마이크 트라웃(LA 에인절스)

25세에 불과한 마이크 트라웃이 역사에 어떤 족적을 남길까. 타율 0.315(549타수 173안타)에 29홈런 100타점. 2012년 AL 신인왕 출신인 트라웃은 2014년 만장일치 MVP에 오른 뒤 올해 생애 2번째 MVP를 수상했다. 총 356점을 획득해 2위 무키 베츠(311점)를 눌렀다. 2014년과 2015년에는 2년 연속 올스타전 MVP까지 차지한 바 있다.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하고 승률 5할 이하 팀에서 MVP 수상한 것은 역대 6번째다.

▲사이영상=릭 포셀로(보스턴)

ML 전체 최다승(22승4패)에 방어율 3.15, 189탈삼진. 릭 포셀로가 AL 사이영상을 받았다고 해서 큰 잘못은 없다. 그러나 논란이 많다. 포셀로는 총 137점을 얻었다. 2위 디트로이트의 저스틴 벌렌더(16승6패·방어율 3.04·254탈삼진)는 총 132점. 그런데 1위표는 벌렌더 14표-포셀로 8표였다. 문제는 투표인단 중 2명이 벌렌더에게 아예 5위까지 표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 여기서 승부가 갈렸다. 벌렌더의 여자친구까지 나서 불만을 표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신인왕=마이클 풀머(디트로이트)

오랜만에 선발투수가 신인왕에 올랐다. 디트로이트의 우완투수 마이클 풀머는 26경기에 선발등판해 11승7패에 방어율 3.06의 호성적을 올렸다. 1위 30표 중 26장을 획득해 총 142점을 받았다. 여름에 폭풍처럼 홈런을 토해내며 맹렬히 추격해온 뉴욕 양키스의 개리 산체스와 대결이 흥미진진했지만 산체스는 91점을 얻는 데 그쳤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2016 ML MVP·사이영상·신인왕 영광의 수상자

리그	수상	이름(팀)	출생연도	포지션	성적
NL	MVP	크리스 브라이언트 (시카고C)	1992	3루수	155경기-타율 0.292(603타수 176안타) 39홈런-102타점
	사이영상	맥스 셔저 (워싱턴)	1984	선발투수	34경기-228.1이닝 20승7패-방어율 2.96-284K
	신인	코리 시거 (LA 다저스)	1994	유격수	157경기-타율 0.308(627타수 193안타) 26홈런-72타점
AL	MVP	마이크 트라웃 (LA 에인절스)	1991	중견수	159경기-타율 0.315(549타수 173안타) 29홈런-100타점
	사이영상	릭 포셀로 (보스턴)	1988	선발투수	33경기-223이닝 22승4패-방어율 3.15-189K
	신인왕	마이클 풀머 (디트로이트)	1993	선발투수	26G-159이닝 11승7패-방어율 3.06-132K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